

손흥민, 아시아 최초 EPL 통산 100호골

브라이튼과 30라운드

경기 시작 10분 만에

토트넘, 2대 1로 승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통산 100호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지난 8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튼과의 2022~2023 EPL 30라운드에서 경기 시작 10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 골을 넣은 다음 토트넘은 순위 경쟁 중인 브라이튼에 2-1로 승리했다. 1-1로 팽팽한 후반 34분 해리 케인이 결승골을 터뜨렸다.

전반 10분 페널티박스 왼쪽 외곽에서 오른발로 절묘하게 감아서 차 브라이튼의 골네트를 가른 손흥민은 2015년 여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후, EPL 통산 100번(50도움) 골을 기록했다.

EPL 260번째 경기에서 대기록을 세웠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23골을 터뜨리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은 다시 한 번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역대 EPL에서 100골 이상을 넣은 아시아 선수는 손흥민이 처음이다.

EPL 역사를 통틀어선 34번째다.

앨런 시어러, 웨인 루니, 해리 케인(이상 잉글랜드), 티에리 앙리(프랑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등 33명이 손흥민에 앞서 통산 100골 이상을 기록했다.

또 이번 시즌 리그 7호골이다. 이번 시즌 인와골점 부상, 2022 카트란월드컵 등의 변수가 있었지만 묵묵히 골 사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손흥민은 일본 국가대표 미토마 카오루(브라이튼)와의 미니 한일전에서도 판정승을 거뒀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7골을 기록 중인 미토마는 전반 한 치례 토트넘의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8일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튼 앤 호브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0라운드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 골로 EPL 100번째 골을 기록했으며 아시아 선수의 EPL 100호골 달성을 최초이다.

골망을 훈들었지만 앞서 핸드볼 반칙을 범해 골로 인정받지 못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경질된 토트넘은 16승(5무9패 승점 53)째를 신고하며 5위를 유지했다.

토트넘은 0-0으로 팽팽한 전반 10분 손흥민의 환상적인 중거리슛에 이은 득점으로 주도권을 잡았다.

홈팬들은 열광하게 한 월드스타였다. 브라이튼도 민망치 않았다. 특히 전반 17분 미토마가 인정적인 트래핑에 이은 오른발 슈팅으로 토트넘의 골네트를 긁었다.

그러나 미토마가 공을 잡는 과정에서 핸드볼 반칙을 범해 골은 인정되지 않았다.

브라이튼은 전반 34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코너킥 세트파스에서 루이스 덩크의 헤더로 골을 터뜨렸다.

전반은 1-1로 끝났다.

팽팽하게 후반 34분 손흥민의 단짝 케인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의 땅볼 패스를 논스톱 오른발슛으로 연결해 결승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은 이후 브라이튼의 반격을 잘 막아 승리를 지켰다. /뉴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장은성 기자



군산시가 9일 월명종합경기장 일원에서 4년 만에 개최된 2023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사진=군산시청 제공)

새만금 벚꽃길을 달렸다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성료

풀코스 남자부 전수환·여자부 이수민 우승

주경기장 정문에 다양한 머거리 부스를 제공했으며 내부에서는 체험존을 운영해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미라토너들이 만끽한 벚꽃과 군산시의 문화유산을 따라 마음껏 달릴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군산시가 국제마라톤대회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저탄소 운동의 일환으로 친환경 메달 친환경 유니폼 등을 제작하여 참가자에 배부했으며 폴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해 친환경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또한 다수부 물리는 위험에 대비해 행사장 내 종합상황실과 의무부스를 설치, 행사장 내 안전지대에 대비했고 미라톤 구역별 근무자를 배치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도내 우수 선수 11명, ‘월드스타’로 육성

전북체육회, 간담회 열고 월드스타 선정 선수·지도자 격려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가 올해에도 전북 체육을 빛낼 우수 학생 선수를 집중 육성한다.

지난 7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월드스타 육성 간담회’를 열고 월드스타로 선정된 선수와 지도자를 격려했다.

월드스타 육성 사업은 도체육회가 전북 체육 더 나아가 한국 체육을 이끌 유망 선수들을 선정, 체계적인 지

원을 통해 경기력을 더욱 향상시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시키기 위해 매년 이뤄지고 있다.

올해 선정된 선수는 골프 안해천(성원고), 수영 이서아(전북체중), 스기 최태희(설천고), 육상 최명진(이리동중), 테니스 조세혁(남원거점스포츠클럽), 당구 김민준(한별초), 바이어슬론 박유진(인성중), 배드민턴 이민재(정읍중), 빙상 정유나(전주제일고). /뉴스

고향사랑기부제 진안에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에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세요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 분 16.5% 추가 공제
-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단체 기부 불가)

기부 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기부금납부, 담례품 선택, 세액공제 원스톱 시스템)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창구(전국 모든 지점) 또는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지역특산품 등 진안의 마음을 담은 담례품지급

- 기부액의 30%
- 진안군 담례품 : 돼지고기, 홍삼, 곡류, 수삼(인삼), 사과, 진안홍삼스파 이용권, 승마체험 이용권, 진안고원몰 온라인 상품권 등 34종

문의 :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인구협력팀 063-430-2830